



김동국 해남병원장.



권세도 해남경찰서장.

땅끝마을서 부처님 삶 실천하는 두 사람
김동국 해남병원장 · 권세도 해남경찰서장

“부처님 일로 마음 통했죠”

을 나는 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별난 경찰서장이구나.”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권 서장을 보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다고 김 원장은 말한다. 김 원장은 해남군외사협회(회장 이상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해 지역 5대 종합병원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195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권세도 해남경찰서장은 고교시절 여행비가 없어 친구들과 수화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그 당시 여수 흥국사를 찾았는데 사천왕이 무섭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편안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시절에는 순천 선암사 복암 서암 절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법학을 보냈다.

서울생활을 할 때도 마음이 답답하면 승

가사와 진관사를 찾아 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음을 수양했다. 요즘도 해남 대흥사에 들러 참배하고, 주지 몽산 스님과 대화를 나눈다. 또 절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 돕는 것은 물론 빠지지 않고 참가한다.

그래선지 부처님의 대기섭법(사람의 수준에 따라 법문해줌)처럼 지역과 상황에 따라 서비스도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즉 농촌에 걸맞는 치안행정이 그것이다. 농촌경찰은 농촌의 실정에 맞는 대민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도 작은 것부터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남병원 김동국 원장은 1948년 태어나면서부터 고향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 해남 대흥사 신도인 김 원장은 젊은 시절 몇 개월 동안 절에 머물며 출가를 생각했을 정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다. 대학 재학시절 방학동안에는 대흥사 일지암에서 생활했

다고 한다. 현재도 병원장실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선천이 20년 이상 대흥사 신도회장을 맡았던 김재현씨이고, 어머니 김순덕 보살도 여신도 회장으로 활동했다. 차에 관심이 많았던 김재현씨는 대흥사 일지암에서 전국 처음으로 다인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가정의 이력이 이렇다보니 현재 해남 대흥사 신도회장은 형님 김동섭 이사장(의료법인 행촌재단)을 비롯해 온 가족이 돈독한 불자이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무의탁 노인 진료와 낙도지역 무료진료 활동을 했고, 해남 대흥사에서 펼치는 사찰린에 절과 병원을 짓고 동포들을 돕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찰린 동포 병원에 엠블런스를 한대 기증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아미타경>의 ‘지중연화 대여거륜 청색창광 황색황광 적색적광 백색백광 미묘향결(池中蓮華 大如車輪 青色青光 黄色黄光

赤色赤光 白色白光 微妙香潔) 보배 연꽃 가운데는 큰 수레 바퀴 만한 연꽃이 피었는데 푸른 빛은 푸른 광채가 나고, 붉은 빛은 붉은 광채가, 흰 빛은 흰빛 광채가 나며, 지극히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다’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는 김 원장.

“공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며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이 말을 가장 즐겨 암송한다’는 김 원장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만나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회향하여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세도 서장과 김동국 원장은 “독거노인 의료서비스는 매달 정기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지역의 전체 독거노인 55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4월 27일 해남병원. 지역 독거노인 20여 명이 해남경찰서가 준비해준 버스를 타고 해남병원에 도착했다. 해남 경찰서 권세도 서장을 비롯한 경찰들의 부축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처럼 병원을 찾은 것이다. 병원에서는 해남병원 김동국 원장이 독거노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독거노인들은 해남병원에서 의료검진 및 진료를 받은 뒤 또 다시 경찰들의 도움으로 경찰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을 나누는 밝은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합시다.”

권세도 해남 경찰서장(50세)과 김동국 해남병원장(60세)은 지역 독거노인 의료봉사 서비스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덕담을 나눴다.

권세도 서장과 해남 토박이인 김동국 원

장은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나이를 떠나 뜻이 잘 맞는 도반이다. 우연한 기회에 자리에 합석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지역 사회 현안으로 자식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독거노인 281명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했다. 이후 권 서장과 김 원장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실행방안을 짜왔다.

독거노인 의료봉사 서비스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권 서장. 권 서장은 지난해 7월 서울관악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다 해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초도 순시차 노인 당에 들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독거노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 중 특히 농촌경찰의 역할을 생각해 틈새행정을 구상했다.

권 서장은 “지역사회에서 무의탁 노인 진료와 낙도지역 무료진료를 펴고 있던 해남병원 김동국 원장과 만나 여러 차례 의견

권 서장, 농촌 실정에 맞는 틈새행정 구상 중 김원장과 생각 공유 독거노인 의료봉사 나서 청년시절 불교와의 인연이 대민봉사에 큰 도움 “매달 정례화 예정 내년엔 5500여명으로 확대”

2006 대한민국 여성주요상품 우수상품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업&브랜드 선정(스포츠투데이)
특별한 선물선언 및 상품등록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주 특별한 선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은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팔찌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에 패러다임 자기발을 첨가하고 울라온이 생성되는 마그마린 실리콘밴드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코팅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로고 혹은 이니셜 색인 가능
본 제품은 의료용품이나 치료가기가 아닙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여)-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별명 구성
팔찌로 구성
100% 실리콘밴드

www.magtorin.com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인경)